



험버

마운드, 일단 순서대로

비로 한숨 돌린 KIA, 험버·양현종·스틴슨 順 유지 오늘도 취소판 '장기 휴식' 양현종 먼저 등판할 수도

비 만난 호랑이, 순리대로 간다. 28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예정이었던 KIA와 한화의 시즌 첫 대결이 우천으로 취소됐다. 비라는 변수가 생겼지만 마운드 전략은 '순리대로'다. KIA는 28일 선발로 예고되었던 험버를 그대로 29일 마운드에 세운다.

우천취소가 확정된 뒤 김기태 감독은 29일 선발을 놓고 잠깐 고민을 했다. 양현종의 로테이션때문이었다. 원래 로테이션이라면 양현종의 등판 날짜는 지난 26일 두산전이었다. 하지만 이날 홍건희의 첫 선발 등판이 이뤄졌다. 양현종은 지난 스프링 캠프에서 천천히 몸을 끌어올리면서 예년보다 실전 준비가 부족했다. 또 팀에서 가장 많은 이닝을 소화한 만큼 양현종의 관리 차원과 4-5 선발진의 정돈을 위해 지난주 등판이 미뤄진 것이다.

그리고 28일 한화전 첫 선발로 양현종이 아닌 험버가 예고됐다. 등판이 미뤄지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지만 양현종은 "몸상태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던지게 돼서 좋다"고 언급했다.

양현종의 등판이 미뤄진 것에는 물관리 측면도 있지만 주중 NC, 주말 넥센을 만나야 하는 다음 주 일정

맞춰 양현종을 두 차례 투입하겠다는 계산도 들어있었다.

예상치 못했던 비가 계산을 복잡하게 만들었지만 KIA는 일단 순리대로 가겠다는 입장이다. 미리 구상해둔 대로 이번 주 험버-양현종-스틴슨이 순서대로 나올 전망이다. 지난 첫 선발 등판에서 합격점을 받은 서재응과 홍건희도 그대로 선발로테이션에서 두 번째 출격을 준비한다.

하지만 아직 변수 하나가 더 남아있다. 일기예보 상으로는 29일에도 광주에는 비가 늦게까지 내릴 것으로 보인다. 두 경기 연속 경기를 하지 못한다면 마운드 전략이 달라진다. 험버와 양현종의 등판 날짜가 바뀔 수도 있다. 그리고 이번 주 4경기 만을 소화하면 되는 만큼 4-5 선발진에서 불펜으로 대기하는 선수가 나올 수도 있다. 스물둘을 높이기 위한 치밀한 계산이 이뤄지게 된다. KIA의 계산은 복잡해졌지만 지난 주말 많은 이닝을 소화한 마무리 윤석민이 하루 더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된 것은 반갑다.

한편 한화가 29일 선발을 유창식이 아닌 탈보트로 예고하면서 관심이 집중된 KIA와 한화의 첫 만남은 험버와 탈보트 두 외국인 선수의 맞대결로 펼쳐진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양현종

김기태 감독 "김성근 감독 때 주장 언제 했더라..."

덕아웃 특·특

▲“비는 여름수목 고개를 숙이다고 하잖아요” = 첫 선발 등판에서 5이닝 1실점의 피칭을 했던 홍건희. 아쉽게 승리는 놓치기는 했지만 기분 좋은 출발이었다. 홍건희는 “승리에 대한 아쉬움은 없다. 처음에 긴장을 하기는 했는데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았다. 초반에 밸런스가 좋지 않아서 제구가 좋지 않았던 것은 아쉽다”며 첫 선발에 대한 소감을 언급했다. 취재진의 질문을 받는 홍건희의 모습이 기록하고도 신기했던 홍우태 코치. “스타탄생 했느냐?”는 홍우태 코치의 질문에 “아직 부족한 게 많다”며 고개를 젓던 홍건희는 “비는 여름수목 고개를 숙인다고 했습니다”라고 씩씩하게 웃으며 훈련을 시작했다. 그런 홍건희의 뒤로 홍우태 코치가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다. “너는 아직 여름이잖아.”

▲“12시간을 자고 최고의 피칭을 하더라고요” = 례메이 트의 호투에 대한 윤석민의 반응이었다. 윤석민은 원정경기

에서 홍건희와 같은 방을 쓰고 있다. 윤석민은 “선발 전날 12시간을 자고, 아침부터 일어나마자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정신없게 있더니 최고의 피칭을 하더라”고 웃었다. 홍건희에게 윤석민은 특별한 선배다. 화순고 재학시절부터 윤석민을 닮고 싶은 선배로 꼽았던 홍건희는 KIA에 입단한 후 윤석민을 닮은 부드러운 품으로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제 기억도 안 나네” = 한화 김성근 감독의 현장 복귀로 성사된 사제간의 만남. KIA 김기태 감독은 김성근 감독이 쌍방을 사령탑을 맡았을 당시 팀의 4번 타자였다. 세월이 지나 지도자로 변신했지만 아직 벤치 대결은 별인 적이 없다. 김기태 감독이 LG 수장을 맡게 된 2012년, 김성근 감독은 2011년 SK에서 중도 경질된 뒤 독립야구단 고양 원더스로 자리를 옮기면서 사제간의 대결이 이뤄지지 않았다. 스승을 적으로 만나게 된 김기태 감독은 “김성근 감독님 시절에 주장을 했었는데 2006년인가, 2007년인가. 이젠 오래돼서 기억도 안 나다”고 쌍방을 시절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 사제간의 첫 대결은 비로 하루 미뤄졌다.

/김여울기자 wool@

“기대하라! FA컵 돌풍” 광주FC, 대전과 32강전

오늘 대전월드컵경기장

프로축구 광주FC가 FA컵을 통해 또 다른 돌풍을 준비한다.

광주 FC가 29일 오후 7시30분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건너가 대전 시티즌과 2015 하나은행 FA컵 32강 원정경기를 치른다.

지난 4월 정규리그 5경기에서 승점이 2 무3패가 기록하고 있는 광주는 이번 경기를 통해 승리를 거두겠다는 각오다. 광주는 단판 승부에 강하다. 지난 시즌 K리그 챌린지 플레이오프에서 거침없는 승리 행진을 하며 승강 플레이오프에 진출했고, 경남 FC까지 제압하며 드라마 같은 승격을 이뤄냈다.

광주는 8강을 우선 목표로 삼고 FA컵 출사표를 던졌다. FA컵 역대 최고 성적은 16강이었다. 지난해엔 32강에서 고양 FC를 꺾고 첫 관문을 넘었지만 16강에서 성남 FC에 연장전 끝에 패배하며 아쉽게 8강 진출에 실패했다.

8강 진출을 위해 먼저 대전을 넘어야 한다. 자신감은 넘친다. 광주는 올 시즌 정규리그 2라운드에서 대전과 맞대결을 벌여

2-0 완승을 거뒀다. 당시 장소도 대전월드컵경기장이었다. 올 시즌 대전에서 광주로 이적한 수비수 안영규가 진정 골문을 뚫으며 친정팀에 비수를 꽂았고, 김호남은 환상적인 발리슛팅을 날리며 팀의 클래식 리그 복귀 첫 승을 신고했다.

최근 상대전적에서도 선수들의 자신감이 넘친다. 통산전적에서는 4승2무5패로 뒤져있지만 최근 흐름은 광주가 주도하고 있다. 앞서 세 차례 대결에서 광주는 1-0, 1-0, 2-0 승리를 거두며 대전을 상대로 무실점 3연승을 기록하고 있다.

광주에게는 승리가 절실하기도 하다. 광주는 폭풍 같은 3월을 보내며 클래식 리그에 성공적으로 복귀했지만 최근 5경기에서 승리 소식을 전하지 못하고 있다. 승리에 대한 갈증을 풀고 싶은 광주다. 진정한 홈경기 개막에 앞서 분위기 반전도 필요하다. 목표에 임시 거처를 마련했던 광주는 오는 5월3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전남 드래곤즈와 정식적인 홈 개막전을 치른다.

FA컵 승리와 함께 광주에서 기분 좋은 출발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광주 FC가 29일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대전 시티즌을 상대로 FA컵 16강 티켓을 노린다. 사진은 앞선 정규리그 경기에서 광주 임선영(가운데)이 대전 수비수와 공중볼을 다투고 있는 모습. <광주 FC 제공>

“10년 된 일본 팬 덕분에 힘 나요”

광주FC 이종민 경기 보러 목포 온 아야코·미치코씨 2005년 울산 시절 인연

광주 FC의 수비수 이종민이 특별한 만남으로 힘을 얻었다.

FC 서울과의 경기가 열렸던 지난 26일 목포국체축구센터에 먼 길을 온 귀한 손님들이 있었다. 베테랑 수비수 이종민을 보기 위해 일본인 아야코, 미치코 씨가 바다를 건너 기차를 타고 목포까지 온 것이다. 울산 현대 소속이던 2005년 처음 시작된 이들의 인연이다.

경기가 끝난 뒤 두 팬과 만남의 시간을 가진 이종민은 “울산에 있었을 때 처음 만났다. 약 10년 정도 됐나? 그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찾아오고 계신다. 일본에 갔을 때도 외주셨다. 울산 구단 자체에 일본 팬들이 많았고, 김정남 감독님 때문에 가족 같은 분위기였다. 그때부터 친하게 지내고 있었고 그렇게 자주는 못 오시지만, 1년에 한두 번 이상은 꼭 오셔서 응원해주시고 선물도 주신다”고 웃음을 지었다.

이종민의 열성팬인 아야코, 미치코 씨는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은 축구광



이다. 웬만한 한국어는 다 알아듣고 어느 정도의 한국어 의사표현도 가능할 정도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다.

이들은 많은 돈을 들여 티켓을 샀지만 “그래도 좋아하니까 괜찮다. 목포에서의 축구 관람도 흥미로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종민은 “과거에 클럽하우스에 오시면 함께 밥을 먹으면서 친해진 시절이 많이 생각난다. 나를 좋아해 주시니까 당연히 나도 좋다. 옛날 생각도 나고, 이분들을 볼 때마다 예전 생각이 많이 난다”며 멀 길을 마다하지 않고 원정응원을 와준 아야코, 미치코 씨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